

# 불자들 힘모아 병원 열었다

## 의정부에 '연화복지의원' 개원... 불우이웃등 무료치료

지역 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병원을 건립해 화제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진료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보현회(이사장 인조)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승), 그리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혜승·이정준)은 27일 의정부시 의정북1동에 노인전문병원 '연화복지의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연화복지의원은 연건평 70평의 2층 규모로 재활의학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을 갖춘 노인 전문 병원으로 재활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 7명이 하루 100~130명을 진료하게 된다. 물리치료실은 동시에 1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2층에는 노인경로당도 마련돼 있어 치료와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화복지의원은 노인복지실현을 모토로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되며, 장애인 재활을 위한 치료와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도 겸하게 된다.

병원부지는 좋은 모임과 의정부 불교사암연합회가 시로부터 병원 건립의 뜻을 인정받아 무료로 임대 받았으며, 병원건립비용과 1억원이 넘는 각종 의료기기가 지역선생들과 불자들의 후원에 의해 이뤄졌다. 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노인복지가 취약했던 경기북부지역에서 노인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초음모는 의미에서 포교는 물론 지역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이름은 조계종 25교구 봉선사 조실 운경스님이 지었으며, 불자들과 지역민들의 후원으로 병원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병원이 건립되기까지 모든 실무를 도맡아 처리해온 좋은 모임은 지난 97년 설립돼 지금까지 '자비의 음식 나누기'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애인 무료도시락 배달' 등 꾸준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이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회공공단체로 자리잡아 온데다 노인복지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



◇27일 개원하는 연화복지의원. 노인전문병원으로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며, 장애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써 지역복지에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모임의 이견식 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병원을 건립하는데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었

다"며 "약사여래불의 증생 치료정신을 계승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병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0351)844-1080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뉴스 & 뉴스

#### 종무행정CD '가람지기' 보급

조계종종무원 기획실(실장 만성)은 18일 종무행정 프로그램 '가람지기' 1.0판 CD를 완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사와 지역별 교육을 통해 사찰에 무료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람지기'는 기획실이 종무행정 전산화 사업에 착수한 지 4년만에 완성한 것으로, 종단 종무행정의 체계화와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람지기에에는 신도명부, 축원카드 작성 및 보관 등 일반적인 사찰 관리도 례는 물론 종단의 각종 문서를 내장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 연꽃마을, 노인복지회관 수탁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15일 전남 광주시로부터 남구 월산동 614-4번지 소재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수탁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은 연건평 25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양·한방 진료와 주간보호실 등을 운영하게 되며, 각종 취미교실과 교양강좌, 노인문제 상담 및 취업 알선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개관은 12월초로 예정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 재가연대 선거논평 발표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6일 '신임총무원장은 교단의 신뢰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재가연대는 "교단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님들이 출가수행자의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며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무소유와 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증생을 교화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한국전력 분할매각 반대

전력산업 분할매각을 반대하는 불교계 318인은 19일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한국전력의 분할매각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성태(불교사주지) 명진(불추위 집행위원장) 스님 등 318인은 성명에서 "효율화를 이유로 한국전력의 사유화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가치를 이용해 귀속시키는 독과점의 논리일뿐 국민의 뜻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동산반야회 인도음악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24일 오후 7시 30분 동산교육회관에서 한인 동호회(회장 정무진)와 인도대사관의 후원으로 '작은 인도음악회'를 연다.

한국과 인도의 교류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인도 음악가 판디트 요티 스와미를 관대세사 인도전통음악을 연주하며, 인도음악전문가 김창수씨가 음악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다. (02)722-0108

이은자 기자

## 종단협, 북경회동 대표단 구성

### "26일 만나자" 수정제의... 월동용품 28일 북한행

종단협의회(회장대행 인곡 태고종총무원장)는 18일 종단협의회 의실에서 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 박태화)이 요청한 월동용품 28일 선박편(인천-남포)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6월 종단협이 주최했던 불교도 금강산 순례 때 마련한 북한동포 지원기금 1억원을 들여 외투 4천벌과 신발 4천 켤레를 지원물품으로 결정했다. 월동용품은 조불련에 직접기탁된다.

종단협은 또 조불련이 제의한 북경회동에 종단별로 응하지 않기로 하고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5개 종단대표와 종단협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

9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조불련에 26일 북경에서 만나자고 수정제의기로 했다. 북경회동 의제 및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곡스님과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 총지종 총지와 통일원장 등 12개 종단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신임회장 추대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직무 시작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 북한 문화재

##### 남한전시 논의

##### 불교추진위 23일 방북

민족화합불교추진위(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는 23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공식방문한다.

명진 도각스님과 유지원 사무총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불교추진위 방북대표단은 북한의 조선불교도

연맹과의 남북불교교류 확대, 북한문화재 남한 전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문화재 남한 전시는 지난 6월 지선스님을 단장으로 한 불추위 대표단과 조불련이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불교추진위는 이번 방북에서 남북한 불교계 대표의 교환방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은다.

김원우 기자

## 경불련 8년 "시민공동체 형성 더욱 매진"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훈)은 26일 오후 5시 30분 세안프라자에서 8주년 기념 및 금강산 만찬행사를 갖는다.

8년을 함께했던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8년

활동소개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재단기 열린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 ▲승무공연 ▲새로운세기 불교시민운동을 주제로한 자유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동훈 운영위원장은 "경불련이 지나간 8년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기의 변화를 주도하고

올바른 실천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21세기에는 최대현인인 기아와 질병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시민공동체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인덕원, 노인요양시설 '호암마을' 개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원장 성운)이 8일 노인요양시설인 호암마을을 설립 개원했다.

호암마을은 치매나 중풍으로 간병이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입주하게 되며, 현재 20명의 수용

인원을 108명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방·양방의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사별의 건강은 물론 정서안정 및 사회교류 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한다. (02)385-8205

한명우 기자



◇추운겨울을 맞아 반양식' 김장을 담겨 어려운 이웃에 나누어 주는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각 복지관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18일 '좋은모임' 봉사대와 관음사 신도회가 벌인 김장담귀주기행사.

## 복지관 겨울자비행사

### '김장김치 나누기' 잇달아

교계 복지관들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펼친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호영)은 27일 '맛갈스런 김장김치 포기마다 넘치는 이웃사랑'을 주제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벌인다. 이날 담겨진 김장김치는 지역내 무의탁노인과 장애인, 저소득가정 100가구에 각각 배달된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무의탁 어른신 김장김치 보내기' 행사를 연다.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김장담그기에 참여하고 1천5백포기의 김장김치가 500세대에게 전달된다.

경북 경산 백천사회복지관(관장 설승)도 이날 30일부터 12월2일까지 제3회 자비의 김장 나누

기 행사를 펼치고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1백5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한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도 30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눠드리기' 행사를 통해 무의탁노인과 편부모세대 등 2백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며, 부천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남)도 27일부터 30일까지 김장김치 나눠드리기 행사를 갖는다.

이밖에 군포 대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수현)이 26~27일 이틀간 주부자원봉사자 60명이 참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여는데 이어 삼정종합사회복지관이 이달말에, 자양사회복지관이 12월 첫주에, 경북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초에 각각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벌인다.

한명우 기자

#### 김태복소장 공판

##### 내달초로 연기

##### 무죄판결 가능성

101여단 군법당 건립과 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요구 등의 혐의로 2심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복소장의 선고공판이 당초 18일에서 12월초로 연기됐다. 이와관련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한용 담당변호사는 17일 "군검찰이 범죄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보아 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한 군사재판부의 평의문 작성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무죄는 아니더라도 군의 체면을 감안,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

민안 김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국도로 위촉된 군 포교가 새로 문 합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군포교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재경 기자

#### 환경활동 자료집

##### 불교환경교육원 발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흥)은 환경활동가 자료집 <생태적 관점에서 다시, 진보를 본다>를 발간했다.

올해 6월 국가행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샵의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모은 이 자료집에는 지역운동, 녹색정치, 환경교육, 여성운동과 생태주의, 과학기술과 환경윤리, 환경운동 등 8개 주제의 집중마당과 휴살림운동, 법전설, 한라산케이볼카, 종교환경운동, 환경소송등 14그룹의 토론마당이 엮여져 있다. (02) 587-8997.

김원우 기자

## 불교강의안내

증생의 각성(覺性)을 계발하기 위해 여기에 작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소위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서 곧바로 불지(佛智)에 적입하는 조그마한 모임입니다.

노우선사와 함께하는 동안 좋은 수행이 될 것입니다.

### 개요

- 일반기초 그리반
  - 개강 : 99년 12월 2일부터 (양력)
  - 매주목요일 13시 ~ 15시
  - 내용 : 일반적 불교교리 전반
- 경전연구반
  - 개강 : 99년 12월 6일부터(양력)
  - 매주월요일 13시 ~ 15시
  - 내용 : 신심증 정도가, 선거귀감, 금강경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선원**  
주 지 노우선사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13  
02)408-1866

## 신입/경력 종무원 모집

본 종단 교세확장에 따라 근면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모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병력을 풀했거나 면제된 자. 35세 미만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인원: 00명
-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종단 소정의 양식) 나.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종단 소정의 양식) 나. 자기소개서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 제출기간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99.11.29(월) ~ 12.11(토) 나. 접수 및 문의처: 135-082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 02-552-1080-3 FAX : 02-552-1082 http: www.chongji.or.kr

\*입사지원서는 종단 홈페이지 방문에 있습니다.

새 천년의 꿈과 희망을  
**불교 충지중**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성물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형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할도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짙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애타게는 중상에 (○) 구입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피로감이 자주 든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위력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눈노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